

지역 매 아리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정보화교육 초급반 추진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에서는 농업인들의 정보화 능력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교육을 통해 소득향상 및 자긍심 함양을 위하여 2019년 하반기 농업인정보화교육(초급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컴퓨터 윈도우와 인터넷 기능 익히기, 블로그 만들어 운영하기, 스마트폰을 이용한 편리한 포스팅 방법 등에 관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2일간 추진되며 정보화 능력 향상에 관심있는 김제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선착순 24명을 모집 중에 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교수농 경영체 육성, 농업인 정보화 교육, e-비즈니스 농업인 양성과 농작물 소득조사,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에게 정보화 역량강화, 스마트폰·유튜브 등 영상 매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각종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해 왔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은 물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로 신뢰도를 높이는 홍보를 목적으로 정보화 능력을 갖추어 판매 증진으로 이어지고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로컬푸드 무인판매대 운영

완주군, LX·전기안전공사 청사 내 시범 운영 판매되지 못한 신선한 농산물 나눔냉장고에 기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도 완주로컬푸드를 구매할 수 있다. 완주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내 무인판매대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무인판매대는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에서 책임운영하며, 완주군의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과일, 채소, 콩나물, 달걀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제철 농산물이 진열된다.

소비자들은 진열된 상품을 고른 뒤 무인결제기를 통해 결제하면 된다. 현금, 카드 모두 가능하다.

또한 무인판매대가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인근에 위치한 나눔냉장고와도 연계해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는 의미까지 더한 것.

군은 기존 전기안전공사 맞은편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서 나눔냉장고를 추가 설치해 판매되지 못한 신선도를 유지한 농산물을 이서면 나눔 냉장고에 기부한다.

이를 통해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들과 인근 주민들의 로컬푸드 이용을 이끌고, 먹거리 복지까지 실현한다.

군은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도에는 판매

대를 설치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먹거리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며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 완주 푸드플랜 정착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내 무인판매대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살기 좋은 김제시로 오세요”

시, 김제시민에게 드리는 작은행복 가이드북 제작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8월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가 제정된 후 김제시민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사업을 총 정리한 인구정책지원 가이드북인 “김제시민에게 드리는 작은 행복”을 제작했다.

이번 홍보 책자에는 김제시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 혜택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생애주기별로 정리하였으며, 관내 유관기관, 금융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결혼·임신·출산에서 사후까지 생애주기별 7개 분야 112개 사업을 수록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임신·출산 분야에는 출산장려금 등 22종 ▲영유아에는 아동수당 지원 등 13종 ▲아동·청소년기에는 김제사랑장학재단 김제사랑장학금 지급 등 25종 ▲청년기에는 청년주택수당 등 16종 ▲전 생애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등 21종 ▲노년기에는 거동 불편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사업 등 8종 ▲사후에 지원되는 장제급여까지 전 생애에 주어지는 혜택들을 모았다.

구명석 기획감사실장은 “최상의 행

/김제=곽노태 기자



정 서비스를 위해 유익하고 편리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김제시 인구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8월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결혼축하금, 청년주택수당 지급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인구감소에 따른 유관기관 공동대응 협약식 개최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시보건소, 수능이후 찾아가는

고3 청소년 심리상담 지원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청소년 탈선예방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수능이후 찾아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교육 및 심리상담, 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현재 김제시는 관내 고등학교 10개교, 학생 수는 755명이며 김제고등학교와 덕암고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관내 고등학교는 관외 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수능 이후 일부 청소년들은 해방감에 젖어 일탈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연말연시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이 시기가 되면 해마다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자아성장과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척도검사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정서행동 심층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전문적 심리 검사를 무료 지원한다.

또한 교육 및 마음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건강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자존감 향상, 스트레스 감소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동해시 여성단체협의회 및 시민참여단 김제시 방문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문순자)는 여성친화 자매도시인 동해시 여성단체회원 (회장 김금래) 및 시민참여단 30 여명과 여성·가족친화 거리 및 벽골제에서 친선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것은 지난 2018년 11월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 및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우호 방문을 시작으로, 매년 상호 친선교류를 통해 여성지

원사업 교류는 물론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정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로 한 협약에 의한 활동의 연장이다.

동해시는 1999년부터 김제시와 20년간 자매결연 도시이며, 2011년 같은 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아 우리 김제시와는 말 그대로 친자매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문순

자)는 동해시 우호 방문에 대하여 감사해 하며 양 도시의 여성권의 향상은 물론,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다짐 하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 여성들이 21세기에 당당한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낌없는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주시는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 및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노력에 찬사를 보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보건소, 어르신 영양충전 '건강 샌드위치 만들기' 실시 ... 15일부터 22일까지

김제시보건소(보건소장 김형희)는 어르신들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이루어 노년기의 영양상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김제시 소지역(읍/면/동) 경로당 10개소를 대상으로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6일간) '영양up! 건강up! 건강 샌드위치 만들기' 조리실습을 실시한다

이번 조리실습은 어르신 식생활지침에 맞게 5대 영양소를 골고루 함

유한 샌드위치를 만들며, 대표적으로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수분함량이 많아 나트륨 배설에 도움이 되는 토마토와 오이, 칼슘이 풍부하여 뼈와 치아에 도움을 주는 치즈 등을 이용하여 나만의 건강 샌드위치를 만들게 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 내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사업과 연계하여 '생활 속 절주 실천수칙 바로 알기, 간접흡연의 폐

해 및 단계별 금연상담' 교육과 영양 관련 지식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었던 어르신들에게 개별 영양문제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며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재료를 이용한 조리실습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농업의 미래” 완주농업인대학 수료식

완주군의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재가 배출됐다.

완주군은 최근 제13기 완주농업인대학 수료식을 통해 총 69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고 12일 밝혔다.

제13기 농업인대학은 시설팔기과, 소셜마케팅과, 농촌치유체험과 3개 학과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완주군 의회 운수봉 부의장 등 내빈과 3개 학과 학생 등 80여명이 참석했으며, 3개과에서 각각 제작한 동영상을 시작으로 공로상, 수료증 수여, 축사, 답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공로표창으로 소셜마케팅과 이우종씨(25)가 농촌진흥청장상을 군수상에는 같은과 김운홍씨(57), 시설팔기과 유홍욱씨(50), 서정자씨(50), 농촌치유체험과 양영모씨(57), 이화영씨(38)가 자치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또한 시설팔기과 권내현씨(37) 등 11명은 개근상을 받았다.

농촌치유체험과 이화영씨는 답사를 통해 “농업인 대학을 통해 농업의 무궁한 문화 콘텐츠와 더불어 농업과 결합된 치유산업을 알게 됐다”며 “이곳에서 배운 지식을 실천에 접목해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전문 농업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순도 소장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농업전진화를 위해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완주농업의 희망이다”며 “교육과정에서 배운 대로 전문 경영인의 마인드로 희망차고 활기찬 농촌을 만들고 으뜸도시 완주, 농도피아 완주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완주농업인대학은 지난 2007년 이래 총 1121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완주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